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3년 1월호

신앙의 해

2012.10~2013.11.



1. 성경 쓰기와 읽기
2. 기쁨과 교회의 교리서와 공의와 문인 공부
3. 삼전예식의 직극적 참여
4. 교구 내 순교자 묘소 방문

"신앙의 해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주님을 향하여 참으로 새롭게 돌아서라는 초대입니다." (믿음의 문, 6항)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의 비유

(루카 7,31-35)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를 부르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 저희를 위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주시는 하느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삶의 이야기

진행자 아래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연 외면〉



〈이웃 외면〉



〈자연 보호〉



〈이웃 사랑〉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복음 7,31-35절 까지 읽어 주십시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진행자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건은 없는지, 우리가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이웃이나 일이 없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에 비유한다. 비유의 이야기인 즉, 한 무리의 아이들이 혼인잔치 놀이를 시작해도 다른 아이들이 호응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시작해도 역시 호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31-32절) 당대 사람들은 어떤 놀이에도 흥미를 잃은 아이들과 같다는 것인데, 다행히 비유의 뜻이 33-34절에 곁들여 있다. 즉, 당대인들은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외면했다는 것이다.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서』에서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6번 ‘사랑의 송가’를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

대사

대사는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우리가 빛인 것을 대신 갚을 권한을 부여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나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 대신 빛을 갚을 권한을 부여하시는 것이다. 대사에는 우리 죄에 해당하는 벌을 모두 사해 주는 '전대사'와 부분적으로 사해 주는 '부분대사'가 있다.

‘신앙의 해’ 특별 전대사 수여

1. 대사를 얻기 위한 기본지침

2012년 10월11일부터 2013년 11월24일까지 ‘신앙의 해’ 전 기간에, 고해성사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영성체를 한 후,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2항의 세부지침을 준수하는 모든 신자는 전대사의 특별한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이미 선종한 신자들에게도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세부지침

1) 모든 신자들

ㄱ) 성시간 혹은 성체강복에 참여하거나 대림절 성탄준비 말씀 카드(사목국 성경부 제작) 암송에 참여할 때, 사순절 묵상집(사목국 제작) 공부에 참여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ㄴ) 교황 대성전, 그리스도인들의 카타콤바 순례, 마산교구는 지정된 순례지(주교좌 양덕동 성당, 교구 내 순교자묘지, 명례성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기도와 묵상,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성모님과 사도들, 수호성인들에게 화살기도를 바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ㄷ) ‘신앙의 해’ 동안 자신이 세례성사를 받은 장소를 경건하게 방문하여 거기에서 자신의 세례 서약을 묵상하고 새롭게 다짐한 후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2) 환자, 봉쇄 수도자, 어떤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신자들은, 자기 집이나 여러 장애로 떠날 수 없는 곳(예를 들어 수도원이나 병원, 요양소, 감옥의 경당)에서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그리고 ‘마산교구 신앙의 해 기도문’을 바치고 자신들의 고통이나 질병을 봉헌한다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교령은 ‘신앙의 해’에만 유효하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신앙의 해 2012-2013

기쁘고 즐거운 사랑의 직무

- 중동성당 소담6반 -

중동성당 소담6반 소공동체 모임이 있는 날, 막달레나 자매님댁 거실에는 이제 막 봉오리를 터트리기 시작한 백합향이 은은합니다. 모임을 앞둔 며칠 전 프란체스카 자매님께서 장에 가셨다가 사다주신 꽃입니다. 모임 날에 맞추어서 피우려고 베란다에 내어놓았다가 들여놓았는데 고작 몇 송이만 피었다며 아쉬워하시는 막달레나 자매님의 표정에서 좋은 향기 함께 나누려는 사랑을 봅니다.



총 37세대로 이루어진 중동성당 소담 6반은 현재 10~12가구 정도가 모임에 나오고 계십니다. 냉담 중이신 분들과 모임에는 잘 나오지 않는 젊은 층을 제외하면, 나머지 가구들은 거의 대부분 나오는 편이라고 하시지요. 낯선 객의 방문으로 살짝 어색함이 감돌기도 했지만 말씀을 읽고, 삶을 나누는 동안 평소의 밝고 유쾌하신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작년부터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데레사 자매님은 농사일을 통해 날마다 체험하는 하느님의 기적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르술라 자매님은 감사한 일이 생길 때나 마음이 복잡할 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고, 모니카 자매님은 필요한 것이 생길 때면 알아서 마련해주시는 하느님 섭리의 체험을 나누셨습니다. 모임의 어르신으로 모두가 ‘어머니’라고 정겹게 부르시던 모데스타 자매님은 사진속 거미줄에 빚대어 기도생활이 잘 되지 않는 요즘의 어려움을 꺼내놓으셨지요.

어렵지만 찬찬히 이어 나가시는 아가다 자매님의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 이야기엔 모두들 귀가 쫑긋해지십니다. 반원들 모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셨는데 청각장애가 있으신 자매님의 면허 합격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지요. 처음 성당에 나오실 적보다는 무척이나 좋아지셔서, 이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실 정도로 말씀도 잘 나누셨습니다. 제대청소와 복사를 맡고 계시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본당의 천사라며 아가다

자매님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공성사 기간이 다가오면 소담 6반의 통신병 프란체스카 자매님을 비롯한 여러 반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지도를 펼쳐가며 냉담 중인 분들의 댁을 직접 방문하여 손수 쓰신 편지와 성사표를 나누어 주신다지요. 마트를 운영하고 계셔서 모임에 늘 늦으시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다는 아녜스 자매님도 세례 받으신 후 3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성당으로 인도해주신 덕분에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원의 집안에 상이 나면 상주라는 생각으로 장지까지 함께 하고, 한 번 식구였던 분은 본당구역 외 신자가 되더라도 이 반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몇 해 전 모데스타 자매님의 칠순잔치도 소담 6반에서 깜빡 파티로 손수 준비하셨다지요. 소공동체를 중심으로 본당 내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애뜻이 돌보고 계셨습니다.

한 이야기가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고, 뭐가 그리 즐겁고 재미난 지 웃느라 바벨 지경이었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사랑 담뱃 물어나는 서로에 대한 칭찬과 감사함으로 마음의 구들장은 온기를 더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 어떠한 직책과 활동보다 ‘사랑’ 만큼 더 중요한 직무가 있을까요? 억지 춘향이 격으로 꾸역꾸역 해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 할 수밖에 없고 ‘사랑’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다가오는 봄, 아가다 자매님이 직접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서 다 같이 꽃구경 가자고 목소리를 모으셨습니다. 환한 웃음이 고우시던 아가다 자매님의 운전면허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올 봄에도, 이듬해 봄에도 또 그 다음 봄에도... 소담6반의 기쁘고 즐겁기만 한 이 사랑의 직무 수행이 계속되길 기도드립니다.



〈중동성당 소담6반 반원들〉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